

데스크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좌파 독재 타도를 외치며 ‘투사’ 코스프레에 나서는 지도부의 모습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지난 3일 광주를 방문했다가 현역 대신 ‘물벼락’을 체험한 황교안 대표의 언급은 그 정점이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전국 순회 투쟁에 대한 글을 올리고 “광주에서는 특정 단체 회원들의 거친 항의도 있었지만, 일반 광주 시민은 ‘제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외침뿐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광주 시민 그 누구도 ‘제발 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친 것 같진 않다. 오히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과 5·18 진상조사위 출범을 외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항의가 있었을 뿐이다.

황 대표는 이날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정상적인 집회가 어려워지자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역무실 안으로 피신한 뒤, 5월 어머니회 등 5·18 유가족들을 피해 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보며

랏폼으로 연결된 다른 문을 이용해 빠져나갔다. 그런데도 ‘제발 좀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외침뿐이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5·18 조사위 외면

광주가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 아닌가.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해 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목숨을 건 투쟁으로 맞섰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사망 및 행방불명자가 181명, 부상자는 2762명이나 된다.

상처는 깊고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광주에 올 수 있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 파동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정계도 없었다. 5·18 진상 규명과 왜곡 처벌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과 공감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를 방문, 장외 투쟁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광주 방문에 의도적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광주 시민의 반발을 예상하고 ‘보수 결집’을 염두에 둔 행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고 팔쩍 뒤편 그만 보여 왔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감안하면 나름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한다.

자유한국당의 ‘독재 타도’라는 슬로건도 오랜만에 듣는 낯설지 않은 단어지만 뭔가 어색하고 주객이 바뀐 듯한 느낌이이다. 그동안 독재 타도의 대상은 군사 정권이나 이를 계승한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에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야 3당이 지정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좌파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이를 막아 내야 한다고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만이야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독재 타도’를 외치기보다는 지금 자유한국당에 필요한 것은 시대와의 공감 이 아닌가 싶다. 또한 지금 요구되는 것은 보수 대개혁을 통한 수권 정당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된 청산은 없었다. 리더십은 실종됐고 오히려 친박(친 박근혜)세력이 되살아났다. ‘태극기 부대’ 등 극우 세력에 휘둘리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기고

우리는 형제다(Tutti Fratelli)

구호 활동을 펼쳤다.

그 후 제네바로 돌아와 1862년에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과 체험을 기록한 ‘솔페리노 회상’을 출간했다. 뒤낭은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상병자를 돌보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호 단체를 평시에 각국에 조직할 것. 둘째, 상병자와 그들을 돌보는 구호 요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 조약을 체결할 것. 그의 제안에 따라 18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창설되고,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와 부상자를 돌보는 군 의료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십자 표장과 적십자 협약(제네바 협약)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191개국에 적십자가 조직되어 인도주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앙리 뒤낭은 적십자 운동의 공로로 1901년 제1회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2차 세계대전 시 부상자 치료와 전쟁 포로 지원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917년과 194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적십자 운동 100주년이 되던 1963년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국제적십자사연맹이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오늘날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전쟁은 줄었지만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 국가(IS)의 테러 등 지구촌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연 재해와 사회적 재난도 증가하고 있다.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해 시작된 적십자 운동은 전시뿐만 아니라 재난 시 긴급 구호와 평시 안전 교육, 보건, 사회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적십자 운동은 구한말 열강의 틈에서 자주 국가로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탄생했다. 1903년 1월 8일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고 ‘하나의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한다’는 국제 조약에 따라 1905년 10월 27일 고종 황제 칙령(제47조)으로 대한제국적십자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대한적십자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독립군 상병자를 구호하고 재외 거주 동포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서부터 6·25 전쟁 중에 수백만에 이르는 피난민 구호 활동과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 현장

제1야당이지만 한반도 평화, 4차 산업 혁명, 빈부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유’ ‘기회’ ‘평등’이라는 보수적 가치를 시대에 맞게 설정하기보다는 여전히 ‘반공’ ‘친미’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과거의 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이다. 논란이 된 선거제·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도 자업자득인 측면이 크다. 막무가내식 반대(공수처)를 하거나 현실성 없는 대안(선거제)을 던지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시대와 공감해야

장외 집회를 통한 극우 보수 결집으로 한국당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민심과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시 현상 일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만만치 않다. 여야가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과감하게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한국당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5·18 망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계 및 조속한 진상조사위 구성 등을 통해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은편칼럼

어머니의 마지막 말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 ‘제네 집에 형제가 많나 봐’ 하지만, 선생님은 알고 있었다. 그 엄마는 보육원의 보모였는데 그 아이는 보육원에 살면서 따뜻한 사랑에 감동하여 감사의 말을 전했던 것이다.

지난해 말 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흥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의 이야기다. 과거 절도 등 범죄로 형사 처벌 받은 아들인데 직장을 꾸준하더니 지고 잦은 음주를 한다는 어머니의 꾸중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사건 당일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격분해 흥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때 아들의 흥기에 질려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외쳤다.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였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길 포기한 듯한 살인자였지만 그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아들 자식’이었던 것이다.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처럼 조건 없는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보며 마음의 한쪽이 크게 아려오는 것은 필자뿐일까? 자신들을 따사롭게 보듬어 주며 잡지는 순간까지 자상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보모 어머니, 또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그저 아들에 대한 참된 사랑을 거뒀을지 못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다.

한편 부모님과 두 딸이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세 명이 살게 되었다. 아버지가간 계시니 빈자리가 너무 컸으리라. 그런데 두 딸은 과년이 되어 결혼하여 어머니 곁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다. 그러나 딸들은 서로 주저 없이 자신들은 결혼하여 따로 살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평생 살기로 하여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님 사랑을 받아 자란 딸들이 홀어머니를 지키고 동행하며 그 가족을 지탱해 가는 모습이 다.

요즈음 가족 관련 사연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더 많다. 의붓아버지의 신체적·성적 학대 속에 친아버지까지 학대하여 기별 곳이 없던 12살 여중생 살해 사건, 딸 실종 20년을 맞아 아빠만 살아서 미안해하는 사연, 아빠 사형시켜 달라 는 딸들의 청원, 그리고 역대 보험금 노린 배우자 살해, 빛 많은 일가족의 자살, 조현병을 앓는 50대가 돌보러 온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 등 너무 놀라운 소식들이 다. 뿐만 아니라 가족 없이 화장된 무연고 사망자의 증가(지난해 2500여 명으로 최근 5년간의 약 2배)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실태는 세월호, 충북 제천 화재 등의 각종 사고, 생명의 경시,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 늘어가는 이혼(지난해 10

만 9000건, 1년 전보다 2.5% 증가) 등이 맞물려 비롯된 가족 해체가 낡은 우리 시대의 ‘민낯’이다.

가정은 생명의 보금자리이고 누구나 태어나면 속하게 된다. 기쁠 때나 슬플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가족이며 최초로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마중 나와 반기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멀리까지 진심으로 배웅해 주는 사랑은 바로 가족이다. 필자 어머니도 내가 찾아뵙고 떠나올 때면 만반의 창문에서 차가 출발할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신다.

시한부 환자들에게 소망을 물으면 대부분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답한다. 이렇듯 가족은 마지막까지 서로 사랑의 나눔을 원한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는 말처럼, 가정은 인생 최고의 행복의 요람이며 유타리다. 사실 ‘하찮은 것이 훗날 좋은 작품이 되고 귀한 것이 후엔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작품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온 삶의 시간들’이 아닐까?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지만 우리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5월엔 우리 모두 가족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가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社說

‘5·18 계엄군이 호국 영웅’ 현충원도 버젓이

광주일보는 최근 서울 전쟁기념관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사망자를 ‘호국 영령’으로 기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다. 한데 국립 서울현충원과 31사단 등 국내 상당수 현충 시설과 군부대들 역시 이 같은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일보의 취재 결과 서울시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계엄군 23명이 안장돼 있는데, 이들 가운데 오발 사고로 숨진 A일병을 제외한 22명의 묘비에 ‘광주에서 전사’라고 새긴 것이다. 이곳 28묘역에는 부사관 이하 사병 20명, 29묘역에는 위관급 장교 3명의 묘와 비석이 있다.

31사단이 지난 2017년 조성한 역사관 내 전사자 추모 공간에서도 5·18 당시 오발 사고로 숨진 A일병을 제외한 22명의 묘비와 비석은 한국당에 의해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계엄군을 호국 영웅으로 기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18 직후 전투한 신규부가 광주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사자로 둔갑시키고 훈장까지 수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전국의 현충 시설과 군부대의 혼란 조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철새 정치인 포함 대폭 물갈이 신호탄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정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엄격한 공천 규칙안을 마련했다. 탈당 경력자와 경선 불복자에 대해 25%의 높은 감산율을 적용하고, 신인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또한 현역 의원이 재출마할 경우 반드시 경선을 거치고, 의정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에서 득표수를 20% 깎아 줄 방침이다. 반면 경선·본선 출마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과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높였다.

이번에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 비중을 키운 것은 의미가 있다. 공천 물에 따르면 어떤 당내 경선이나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으며 시·도당 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아닌 사람은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의 가산점을 받는다. 과거 공천 심사에서는 가산점이 없었고 경선에서만 10% 가산점을 적용받았던 신인에게는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無等鼓

광주에는 특정 음식점들이 모여 거리를 형성한 곳이 많다. 유동 오리탕 골목, 송정동 떡갈비 골목, 지산동 무등산 보리밥집이 있다.

오리탕 골목은 5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1970년대 유동 옛 광주고속 터미널 앞에 식당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해 지금은 20여 곳이 성업 중이다. 유동 오리탕이 주 메뉴로 뜬 것은 들깨 향의 진한 국물과 푸짐한 미나리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광산구청 주변에 모여 있는 송정 떡갈비는 1950년대 송정장에서 식당을 하던 최 모 할머니가, 이가 약한 시댁 어른들을 위해 소고기를 다져 만든 것이 시초라 한다. 처음에는 소고기만 사용했는데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돼지고기를 섞기 시작했다. 돼지고기 비율을 70%로 높이자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나 대박이 났다.

보리밥집은 1980년대 무등산 등산객들이 배고팠던 시절을 추억하며 먹던 도시락에서 비롯됐다. 점심사입구 한 식당 주인이 장사가 안 되는 월인을 찾기 위해 장물재에 올랐다가 보리밥 도시락을 먹

틀게이트 인근에 매복하고 있던 전교사 기갑학교 부대원들과의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다.

계엄군 사망자들이 대침투 작전 수행 중 전사자로 현역되고 있는 것은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내 ‘육군 명예의 전당’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이달 초 5월 단체 관계자들이 확인한 결과 담양 11공수여단 동충탑에도 5·18 당시 사망한 11공수 부대원 11명도 버젓이 ‘전사자’로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국내 대표적인 현충 시설들이 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계엄군을 한국전쟁 등에서 산화한 호국 영웅들과 함께 추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18 직후 전투한 신규부가 광주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사자로 둔갑시키고 훈장까지 수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전국의 현충 시설과 군부대의 혼란 조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 규칙안을 보면 탈당을 입삼는 ‘철새 정치인’들에 대한 감점 비중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이들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탈당 경력자와 경선 불복자들은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는 10% 감점이지만, 경선에서는 감점이 25%로 확대된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소신은 내팽개친 채 자신의 당선 가능성만 놓고 이 당 저 당 거웃거리는 정치인도 줄어들 것만은 늘 지만타라였다. 그럼에도 각 당은 과거 당선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들에 대한 감점을 높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하겠다.

아직 총선이 1년이나 남아 있긴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소신 없는 철새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대폭 물갈이를 통해 신인들의 진입 창구를 크게 열어 주어야 다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 ‘대표 음식’

는 등산객들을 보게 됐다. 이를 보고 보리 비빔밥을 내놓게 됐는데 보릿고개의 향수는 물론 건강식을 찾는 추세와 맞아 떨어져 광주의 대표 음식이 됐다.

이밖에 ‘상추 튀김’은 1970년대 후반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뒷골목 두 평 남짓한 튀김 가게에서 우연히 탄생했다. 당시 튀김 가게엔 가난한 상인들이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을 먹곤했다. 한데 어느 날 밥이 떨어지자 밥 대신 상추를 싸 먹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었다.

그렇게 해서 상추 튀김은 광주만의 독특한 음식이 됐다. 광주시가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선정에 나섰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음식 외에 한정식, 애호박찌개, 육전, 주먹밥 등 9개 음식을 후보로 선정했고 오는 10일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최종 ‘대표 음식’을 결정한다고 한다. 차별성·상징성·대중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이왕에 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란 외지인들의 시선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성공 여부는 관광객들의 입맛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                   |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여론매체부 220-065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